

《靈樞·論勇》에 對한 研究

張大源 · 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BSTRACT

YoungChu · NonYong(靈樞·論勇) seems to be named as such by its explanation in detail about the brave man who can and the coward who cannot stand pain respectively.

In the first chapter, it is considered that the factors of diseases are dependent upon the state of skin and flesh. In the second chapter, it is put about the problem of standing pain and not. In the third chapter, about the causes of resulting in brave or unbrave man. And in the fourth chapter, about drunken frenzy(酒悖).

More concretely speaking, in the first chapter, it is explained that the factors of pathogenesis are related closely with the state of skin and flesh, so to speak, though the outer factors which can arouse diseases should exist, the sensitivity of skin and flesh which are the first defense tissue in human body, is more important factor. Undoubtedly, the environmental factors existing in physical nature which surrounds human life, have influenced upon human health, especially in ancient times. But, this chapter exhibits some reflections that ultimately the inner conditions of human body decide the attack of diseases. However, this chapter may have some corruptions for it reveals the contents which are not fit with the headline.

In the second chapter, it is written that the sensitivity to pain is not only dependent upon the character of bravery but also upon the thickness of skin, the strength of flesh and the speed of response. In this we evidence that the ancient people had the idea that human pain-feeling is more dependent upon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sensory neuron of physical body than one's character of bravery.

In the third chapter, it is described that the differences of physical development mainly influence the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mental bravery.

In the fourth chapter, the drunken frenzy is explained. The implication is that as civilization has been growing, the drinking culture has made both in individual and social health affair. The alcohol has the function of pleasing mind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but it can also destroy both human body and mind when abused. About the harms like this, this part warns by the examples of drunken man's abnormal behaviors.

Key Word : brave man, unbrave man, drunken frenzy.

접 수 : 2000년 4월 28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장대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613-330-3525)

I. 緒論

「論勇」은 《靈樞》第五十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該當되는 內容이 없고 《甲乙經》에는 卷六 第五에, 《類經》에는 卷四 「藏象類·堅弱勇怯 受病忍痛不同」에 敘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모두 三章으로, 《靈樞經校釋》에서는 四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그 內容을 檢討하여 四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勇士와 怯士가 痛症을 잘 참느냐 못 참느냐를 상세히 論하고 있기 때문에 「論勇」이라 名命한 것으로 보인다. 第一章에서는 疾病發生의 要因이 皮膚와 肌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內容을, 第二章에서는 忍痛, 不忍痛의 문제를, 第三章에서는 勇士와 怯士가 생기는 原因을, 第四章에서는 酒悖 즉 술 주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第一章에서는 疾病發生의 要因이 皮膚와 肌肉의 狀態와 밀접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즉 疾病을 誘發하는 外的要因이 존재할 지라도 人體의 一次 防禦組織인 皮膚와 肌肉의 感受性에 따라 發病與否가 판가름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대에는 疾病의 發生이 內的要因보다 外的要因에 더 큰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界의 環境의 要素가 人體健康에 막대한 影響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人體內部的 條件에 따라 疾病罹患의 與否가 결정하므로 이에 관한 나름의 論理를 소박하게나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第一章의 內容은 本篇의 題目과 어울리지 않는데 이로 보면 아마도 錯簡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第二章에서는 痛

症에 대한 感受性與否를 論하고 있는데, 痛症을 잘 견디고 못 견디고 하는 문제는 性格의 勇敢性에만 달려 있는게 아니고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 緩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論하고 있다. 이는 痛症을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문제는 氣質의 勇敢, 卑怯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肉身이 가지고 있는 조건 즉 감각신경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古人들이 一次的으로 나마 밝혀놓은 것으로 보인다. 第三章에서는 勇士와 怯士의 差異가 생기는 原因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체의 發達與否가 人間의 精神健康에 影響을 미쳐 勇敢과 卑怯의 心的差異를 나타낸다고 논술하고 있다. 第四章에서는 酒悖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社會와 文明이 발달되면서 飲酒文化가 개인的 건강뿐 아니라 社會적 문제로 까지 擡頭되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술은 人間의 마음을 유쾌히 하고 정신을 高潮시켜 人間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나 잘못된 음주습관은 人間의 몸과 마음을 荒廢化하므로 이에 대한 危害를 警告하고자 過飲한 사람의 非正常的인 行동을 예로 들어 論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本篇은 醫學을 하는 가운데 일상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本文가운데는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우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 나. 《類經》,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三章으로 나누었다.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r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2. 研究資料

<表.一>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靈樞校注語譯에 明刻本	明本
7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抄本	日抄本
11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13	《千金要方》	要方
14	《千金翼方》	翼方
15	《醫學綱目》	綱目
16	《靈樞識》	靈樞識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2	張介賓	明	類經	景岳
3	樓英	明	醫學綱目	樓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波
7	章楠	1825年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章
8	楊維傑	民國65年	黃帝內經譯解(靈樞)	譯解
9	澁江抽齋	1981年	靈樞講義	講義
10	廓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Ⅲ. 本 論

第一章. 皮膚와 肌肉의 상태에 따른 疾病의 感受性

【原文】

黃帝問於少俞曰 有人於此하니 竝⁽¹⁾行竝立에 其年之長少等也며 衣之厚薄均也라도 卒然遇烈風暴雨⁽¹⁾에 或病하고 或不病하며 或皆病하고 或皆不病⁽²⁾하니 其故는 何也오 少俞曰 帝問何急⁽²⁾이니잇고 黃帝曰 願盡聞之니이다 少俞曰 春은 靑風⁽³⁾이요 夏는 陽風이요 秋는 涼風이요 冬은 寒風이니 凡此四時之風者는 其所病이 各不同形하니이다 黃帝曰 四時之風이 病人은 如何잇가 少俞曰 黃色薄皮弱肉者는 不勝春之虛風하고 白色薄皮弱肉者는 不勝夏之虛風黃하고 靑色薄皮弱肉이면 不勝秋之虛風하고 赤色薄皮弱肉이면 不勝冬之虛風也⁽⁴⁾니이다 黃帝曰 黑色은 不病乎아 少俞曰 黑色而皮厚肉堅이면 固不傷於四時之風이나 其皮薄而肉不堅하고 色不一者는 長夏至而有虛風者면 病矣요 其皮厚而其肉堅者는 長夏至而有虛風이나 不

病矣며 其皮厚而肌肉堅者라도 必重感⁽³⁾於寒하여 外內皆然이면 乃病하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校勘】

- 1) 暴雨: 《甲乙》卷六 第五에는 ‘疾雨’로 되어 있다.
- 2) 或皆病 或皆不病: 《甲乙》卷六 第五에는 ‘或皆死’로 되어 있다.
- 3) 靑風: 《甲乙》卷六 第五에는 ‘溫風’으로 되어 있다.
- 4) 靑色薄皮弱肉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 不勝冬之虛風也: 《甲乙》卷六 第五에는 ‘靑色薄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者 不勝冬之虛風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竝: 同一也 같은 병.
- (2) 急: 先也 먼저 선.
- (3) 重感: 한 가지 邪氣가 侵犯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邪氣가 侵犯한 것을 말한다.

【較註】

[1] 春青風 夏陽風 秋涼風 冬寒風 凡此四時之風者 其所病各不同形

馬·景岳·譯解는 “四시에 各各 虛邪賊風이 있는데 봄에 있으면 이름이 靑風이고, 여름에 있으면 이름이 陽風이며, 가을에 있으면 涼風이고, 겨울에 있으면 寒風이다.”¹⁾고 하였다.

[2] 黃色薄皮弱肉者 不勝春之虛風

馬·景岳·張·譯解는 “사람의 顏色이 노랗고 皮膚와 肌肉이 薄弱한 사람은 주로 脾氣가 不足하여 봄의 靑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木이 土를 剋制한 것이다.”²⁾고 하였다.

[3] 白色薄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

馬·景岳은 “色이 희고 皮膚와 肌肉이 薄弱한 사람은 주로 肺氣가 不足하여 여름의

陽風을 견디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火氣가 몰려와 金氣를 克伐한 것이다.”³⁾고 하였다.

[4] 靑色薄皮弱肉 不勝秋之虛風

馬·景岳은 “色이 푸르고 皮膚, 肌肉이 薄弱한 사람은 주로 肝氣가 不足하여 가을의 涼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金氣가 와서 木氣를 剋制한 것이다.”⁴⁾고 하였다.

[5] 赤色薄皮弱肉 不勝冬之虛風也

馬·景岳은 “色이 붉고 皮膚, 肌肉이 薄弱한 사람은 주로 心氣가 不足하여 겨울의 寒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 것이니 水氣가 와서 火氣를 剋制한 것이다.”⁵⁾고 하였다.

[6] 黃帝曰 黑色不病乎 少俞曰 黑色而皮厚肉堅 固不傷於四時之風 其皮薄而肉不堅 色不一者 長夏至而有虛風者病矣 其皮厚而其肉堅者 長夏至而有虛風不病矣 其皮厚而肌肉堅者 必重感於寒 外內皆然乃病 景岳·馬·張은 “검은 색은 水의 색이니, 黑色을 가지고 있으나 皮膚와 肌肉이 堅實하지 못하고 色이 때로 變하여 한결같지

1) 馬: 四시에 各有虛邪賊風하되 在春이면 名爲靑風이요 在夏면 名爲陽風이요 在秋면 名爲涼風이요 在冬이면 名爲寒風이라 ○景岳: 春之靑風은 得木氣하고 夏之陽風은 得火氣하고 秋之涼風은 得金氣하고 冬之寒風은 得水氣라 凡此四時之風은 各有所王하니 有所王則有所制라 故로 其所病이 各不同形也라 ○譯解: 靑風이 甲乙經에 作溫風이라 靑風與溫風은 名異實同하니 主要因春季屬木하고 其色靑하니 所以로 把春季의 溫風하여 稱爲靑風이라 水爲陰이요 火爲陽이니 夏陽風은 就是形容夏季의 熱風이라
2) 馬: 人之色黃皮薄肉弱者는 主脾氣不足하여 不能勝春之靑風而爲病이니 木來剋土也라 ○景岳: 黃者는 土之色이니 黃色薄皮弱肉者는 脾氣不足也라 故로 不勝春木之虛風이라 ○張: 朱永年曰 虛風者는 虛鄉不正之邪風也 ○譯解: 由於黃色屬土하고 春季屬木하여 木能克土하니 所以色黃薄皮而肌肉瘦弱의 人은 就經不起春季의 虛風而會生病이라 這是根據五行生克의 規律而言이요 其餘色靑色白等은 按此類推라 虛風은 亦就是指每季反常의 風向而言이라

3) 馬: 色白皮薄肉弱者는 主肺氣不足하여 不能勝夏之陽風而爲病이니 火來剋金也라 ○景岳: 白者는 金之色이니 白色薄皮弱肉者는 肺氣不足也라 故로 不勝夏火之虛風而爲病이라
4) 馬: 色靑皮薄肉弱者는 主肝氣不足하여 不能勝秋之涼風而爲病이니 金來剋木也라 ○景岳: 靑者는 木之色이니 靑色薄皮弱肉者는 肝氣不足也라 故로 不勝秋金之虛風而爲病이라
5) 馬: 色赤皮薄肉弱者는 主心氣不足하여 不能勝冬之寒風而爲病이니 水來剋火也라 ○景岳: 赤者는 火之色이니 赤色薄皮弱肉者는 心氣不足也라 故로 不勝冬水之虛風而爲病이라

얇은 사람은 腎氣가 不足한 것이다. 그러므로 長夏土令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여 病이 된다. 만약 검은색을 띠고 있으면서 피부, 肌肉이 견실한 사람은 비록 長夏의 虛風을 만날지라도 病들지 않게 된다. 다만 이미 風邪에 感觸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寒氣에 감촉되면 이것이 重感인 것이고, 또 인체 內部가 손상되었는데 여기에 또 外部가 손상되면 이것은 內外가 모두 손상된 것이므로 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검은색을 띠면서 皮肉이 견실한 사람은 참으로 다른 색깔을 지녀 쉽게 病드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⁶⁾고 하였다.

【考察】

1. 《甲乙》에는 ‘靑風’이 ‘溫風’으로 되어 있는데 《甲乙》의 기재가 옳은 것 같다. 왜냐 하면 아래 ‘陽風’, ‘涼風’, ‘寒風’이 기후의 寒溫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色을

나타내는 ‘靑’字보다는 溫度를 나타내는 ‘溫’字가 의미로 보아 원문의 뜻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이다.

2. ‘靑色薄皮弱肉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 不勝冬之虛風也’가 《甲乙》에는 ‘靑色薄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者 不勝冬之虛風也’로 되어 있는데, 윗문장이 ‘黃色薄皮弱肉者 不勝春之虛風 白色薄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3. 第一章의 內容은 본편의 題目인 論勇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甲乙》에는 本章이 《靈樞·賊風》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보면 王冰이 本書를 편찬할 때 내용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4. 第一章에서는 질병발생의 要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질병발생의 外因은 變化의 條件이고, 內因은 變化의 根據가 된다. 外因은 內因을 거쳐 질병을 발생하는 作用을 하게 되는데 本節經文에서는 소박한 언어로 內因이 疾病發生의 主導的 作用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實踐經驗과 理論知識은 東洋醫學의 소박한 辨證的 發病觀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피부, 肌肉이 薄弱하면 쉽게 邪氣에 감촉되어 질병에 이환된다는 道理에 대해서는 朱永年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蓋皮膚肌膚之間은 五臟元眞之所通會라 是以로 薄皮弱肉則臟眞之氣虛矣요 五臟之氣虛則不能勝四時之虛風矣라”하여 질병발생의 外因은 반드시 인체의 내부조건 즉 內因에 연계되어 發病의 요인이 된다는

6) 景岳: 黑者是 水之色이니 黑色而皮薄肉不堅하고 及色時變而不一者是 腎氣不足也라 故로 不勝長夏土令之虛風而爲病이라 若黑色而皮厚肉堅者是 雖遇長夏之虛風이라도 亦不能病이라 但既感於風하고 又感於寒이면 是爲重感이요 既傷於內하고 又傷於外면 是爲外內俱傷이니 乃不免於病也라 然則黑色而皮肉堅者是 誠有異於他色之易病者矣라 ○馬: 至於有不病者하여는 正以色黑而皮厚肉堅者니 不傷於四時之虛風이라 若色黑而皮薄肉脆者是 則傷於長夏之虛風耳라 長夏虛風者是 見於六月而與陽風同也니 亦土能剋水之義耳라 彼黑色而皮厚肉堅者是 雖長夏之虛風이라도 亦不能傷之也니 豈特不傷於四時之風哉리요 但黑色而皮厚肉堅者라도 亦有四時而爲病하니 必其既感於風하고 又重感於寒하며 既病於內하고 又感於外면 始有所病이요 不然則未必成病也라 其異於他色之易病者遠矣라 ○張: 朱永年曰 外內皆然乃病은 謂外受天之寒邪하고 內傷腎臟之水氣니 此는 言人之五臟이 與天之六氣로 相合이라 是以로 五色之薄弱者是 不能勝四時之風氣也라

道理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直譯】

黃帝께서 少俞에게 말씀하였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나이도 같고 衣服의 厚薄도 균등할 지라도 갑자기 심한 바람이나 暴雨를 만났을 때에 或 病이 들기도 하고 或 病이 들지 않기도 하며 或 다 病이 들기도 하고 或 다 病이 들지 않기도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黃帝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봄은 靑風, 여름은 陽風, 가을은 涼風, 겨울은 寒風으로서 무릇 이 四時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病들게 하는 바가 각기 형태가 같지 않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四時의 바람이 사람을 病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黃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白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여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靑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가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赤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겨울의 虛風을 이기지 못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黑色인 사람은 病들지 않습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黑色이면서 皮肉이 두텁고 堅固하면 四時의 바람에 傷하지 않으나, 그 皮膚가 薄弱하고 肌肉이 堅固하지 못하며 色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면 病이 들고, 그 皮膚가 두텁고 肌肉이 堅固한 사람은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더라도 病들지 않

며, 그 皮膚가 두텁고 肌肉이 堅固할 지라도 반드시 寒氣에 重感되어 外內가 다 그러하면 마침내 病이 들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第二章. 忍痛, 不忍痛

【原文】

黃帝曰 夫人之忍痛與不忍痛者는 非勇怯之分也라 夫勇士之不忍痛者는 見難則前하고 見痛則止¹⁾하며 夫怯士之忍痛者는 聞難則恐하고 遇痛不動이요 夫勇士之忍痛者는 見難不恐하고 遇痛不動하며 夫怯士之不忍痛者는 見難與痛에 目轉面盼²⁾⁽¹⁾하며 恐不能言하며 失氣驚³⁾하며 顏色變化⁴⁾하여 乍死乍生하니 余見其然也⁵⁾나 不知其何由니 願聞其故하노이다 少俞曰 夫忍痛與不忍痛者는 皮膚之薄厚와 肌肉之堅脆緩急之分也요 非勇怯之謂也니이다

【較勘】

- 1) 止: 《校釋》에 “止가 統本에 正으로 쓰여 있다.”⁷⁾고 하였다.
- 2) 目轉面盼: 《校釋》에 “目轉面盼의 面字는 而字와 形態가 비슷해서 잘못된 것 같다. 문장의 意味로 보면 而字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⁸⁾고 하였다.
- 3) 失氣驚: 《語譯》에 “周本과 日刻本에는 驚字아래에 모두 悸字가 있다.”⁹⁾고 하였는데, 《類經》에도 ‘失氣驚悸’로 되어 있다.

7) 《校釋》: 統本作正이라

8) 《校釋》: 面字는 疑因形近而致誤니 詳文義컨대 似應改爲而라

9) 《語譯》: 周本日刻本에 驚下并有悸字라

- 4) 顔色變化: 《語譯》에 “周本과 日刻本에는 化字가 更字로 되어 있다.”¹⁰⁾고 하였고, 《類經》에도 ‘顔色變更’으로 되어 있다.
- 5) 余見其然也: 《校釋》과 《語譯》에 “周本에는 其字가 不字로 되어 있다.”¹¹⁾고 하였다.

【字句解】

(1) 盼: 結눈질 할 혜.

【較註】

[1] 夫人之忍痛與不忍痛者 非勇怯之分也 夫勇士之不忍痛者 見難則前 見痛則止 夫怯士之忍痛者 聞難則恐 遇痛不動 夫勇士之忍痛者 見難不恐 遇痛不動 夫怯士之不忍痛者 見難與痛 目轉面盼 恐不能言 失氣驚悸 顔色變更 乍死乍生 余見其然也 不知其何由 願聞其故——夫忍痛與不忍痛者 皮膚之薄厚 肌肉之堅脆緩急之分也 非勇怯之謂也

景岳·馬·張·章·譯解는 “이는 痛症을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이 勇敢하고 卑怯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質問한 것이다. 勇士의 氣는 剛하지만 그 중에도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을 보면 비록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나 통증을 느끼면 물러나고, 怯士의 氣는 약하지만 그 중에도 통증을 잘 견디는 사람은 어려운 점에 대해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아픔을 만나면 搖動이 없다. 또 勇敢하면서도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통증에 모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卑怯하고 통증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면 눈이 돌아가고 어지러워

빙빙 돌며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지 못하고 깜짝 깜짝 놀라 돌아 보며 심지어 말을 못하고 얼굴색이 변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나뉠의 까닭이 있다.”¹²⁾고 하였다.

【考察】

本章에서는 통증을 잘 참고 참지 못하

12) 景岳: 此는 問能忍痛與不能忍痛者가 非由勇怯而然也라 夫勇士之氣는 剛而有不能忍痛者는 見難雖不恐이나 而見痛則退矣요 怯士之氣는 餒而有能忍痛者는 聞難則恐而遇痛不動也라 又若勇而忍痛者는 見難與痛에 皆不懼하고 怯而不忍痛者는 見難與痛則目轉眩旋하며 面盼驚顛하고 甚至失言變色하여 莫知死生이라 此四者之異는 各有所由然也라 ○馬: 此는 言人之忍痛不忍痛者가 以皮肉有不同이요 而非由於勇怯之故也라 勇士有不忍痛者는 見難에 雖能向前이나 而見痛則止하고 彼怯士有能忍痛이면 其見難에 雖恐이나 而遇痛則不動이라 勇士有忍痛者는 見難에 固不恐而遇痛에 亦不動하고 彼怯士之不忍痛者는 不分見難與痛하고 目轉而盼하며 恐懼不敢出一言하며 退然失氣하며 恍然而驚하며 顔色卒變하여 甚至乍死乍生이라 殊不知忍痛者는 正以皮厚肉堅且緩也요 不忍痛者는 正以皮薄肉脆且急也니 豈關勇怯之故哉아 ○張: 倪沖之曰 此는 言形氣之有別也라 夫忍痛與不忍痛者는 因形之厚薄堅脆也요 勇怯者는 氣之強弱也라 上節은 論因形而定氣요 此는 論形氣之各有分焉이라 蓋形舍氣하고 氣歸形하니 形氣之可分可合而論者也라 ○章: 勇士는 秉忠義而不畏死 故로 見難則前이나 其不能忍痛者는 以無關大義 故로 見痛則止요 其能忍痛者는 見難에 既不恐하고 遇痛에도 亦不動矣라 怯士는 貪生而不重義하여 雖能忍痛이나 而見難亦恐하여 不敢前하니 其不忍痛者는 無論矣라 是忍痛與不忍痛은 在皮肉厚薄堅脆不同이요 勇之與怯은 在稟性之剛正與懦弱之異也라 ○譯解: 目轉은 是形容極度驚恐時에 目暈眼花하여 視物이 像旋轉一樣이라 面盼는 是形容面部斜側向外에 驚慌得不敢直視의 樣子라

10) 《語譯》: 周本日刻本并作更이라

11) 《校釋》·《語譯》: 周本作不이라

는 것은 사람의 용감성과 비겁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 緩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論하고 있다. 그러나 아울러 용감한 사람 가운데에도 의외로 별 것 아닌 통증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비겁한 사람가운데에도 통증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면서 통증을 잘 견디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氣質보다는 육체적인 조건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견해인 것 같다. 통증에 대한 感受性問題는 感覺神經의 발달정도에 달린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器質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통증에 대한 감수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사람이 痛症을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은 勇敢과 卑怯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勇士가운데에도 통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나아가고 痛症이 보이면 동작을 멈추며, 怯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痛症을 만나면 動搖가 없으며, 勇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痛症을 마주하고도 動搖가 없으며, 怯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통증을 마주치면 눈이 돌아가고 얼굴을 돌려 보며 두려워, 말을 못하게 되고 氣를 잃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되며 顏色이

變化하여 죽은 것 같이 되는데, 내 그러한 것은 보았으나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願컨대 그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무릇 痛症을 참고 못 참는 것은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 緩急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勇敢과 卑怯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第三章. 勇士와 怯士

【原文】

黃帝曰 願聞勇怯之所由然하노이다 少俞曰 勇士者는 目深以固하며 長衡¹⁾直揚²⁾하며 三焦理橫³⁾하며 其心端直하며 其肝大以堅하며 其膽滿以傍하여 怒則氣盛而胸張하며 肝舉而膽橫하며 眚裂而目揚하며 毛起而面蒼하니 此勇士之由然者也니이다 黃帝曰 願聞怯士之所由然하노이다 少俞曰 怯士者는 目大而不減하고 陰陽相失하며 其²⁾焦理縱하며 鬲肝短而小하며 肝系緩하며 其膽不滿而縱하며 腸胃挺하며 脇下空하여 雖方大怒나 氣不能滿其胸하고 肝肺雖舉³⁾나 氣衰復下라 故로 不能久怒하니 此怯士之所由然者也니이다

【校勘】

- 1) 長衡: 《張馬合本》에는 ‘長衡’으로 되어 있다.
- 2) 其: 《校釋》에 “周本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고¹³⁾ 하였다.
- 3) 肝肺雖舉: 이 글귀는 앞 文章의 ‘肝舉而膽橫’과 對句를 이루고 있고, 또 文章의 意味로 보아도 ‘肝膽雖舉’의 잘못인 것 같다.

13) 《校釋》: 其가 周本에 作三이라

【字句解】

- (1) 衡: 눈썹 위를 말한다.
- (2) 揚: 눈썹의 上下部位 혹은 눈빛이 걸
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 (3) 橫: 橫暴, 橫行의 뜻이다.

【校註】

[1]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理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膽滿以傍 怒則氣盛 而胸張 肝舉而膽橫 皆裂而目揚 毛起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景岳·黃은 “눈은 五藏六府의 精이니 눈이 깊고 견고하면 藏氣가 굳건한 것이다. 長衡은 濶大이니 바로 從衡의 뜻이고, 直揚은 視線이 곧고 눈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三焦理橫이라는 것은 무릇 剛急한 사람은 肌肉이 기필 橫暴하고 柔緩한 사람은 肌肉이 從順하다. 其心이 端直한 것은 剛健하고 勇敢한 氣運때문이다. 大以堅과 滿以傍은 傍은 바로 傍開를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常度보다 지나친 것이다. 怒則氣盛而胸張과 皆裂而目揚은 勇敢한 사람의 肝膽이 強하여 肝氣가 上衝하기 때문이다. 毛起는 肝血이 外溢하기 때문이고, 面蒼은 肝色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다 勇士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勇怯의 차이는 肝膽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肝은 將軍之官인데 膽에서 決斷을 取한다.’고 하는 것이다.”¹⁴⁾고 하였고, 馬·張

14) 景岳: 目者是 五藏六府之精也니 目深以固는 藏氣之堅也라 長衡은 濶大也니 卽從衡之意요 直揚은 視直而光露也라 三焦理橫은 凡剛急者는 肉必橫이요 柔緩者는 肉必從也라 其心端直者는 剛勇之氣也라 大以堅과 滿以傍者는 傍卽傍開之謂니 過於人之常度也라 怒則氣盛而胸張과 皆裂而目揚者는 勇者之肝膽이 強하여 肝氣上衝也라 毛起者는 肝血外溢也요 面蒼者는

은 “勇士는 兩目이 매우 깊고, 또한 눈동자를 돌려 회피하지 않아 매우 견고하며 長衡直揚의 형세를 가지고 있고, 안의 三焦紋理가 橫으로 생기며 心은 端正하면서도 곧고 膽은 汁이 그득차고 橫暴하여 화를 낼 때에는 氣가 盛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肝膽의 氣運이 솟구쳐 橫行하며 눈자위가 열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揚揚하며 터럭이 일어나고 안색이 새파래 지니 이것이 勇士가 생기는 까닭이다.”¹⁵⁾고 하였으며, 《語譯》·《校釋》에는 “長衡直揚은 文選魏都賦劉注에 ‘眉上을 衡이라’하니 이는 눈썹이 길게 자라 우뚝 서 있는 것을 말한다. 其膽滿以傍의 傍은 旁과 通하고 旁은 盛의 意味가 있다.”¹⁶⁾고 하였다.

肝色外見也라 此皆勇士之由然이라 然則勇怯之異는 其由於肝膽者爲多라 故로 肝曰將軍之官而取決於膽이라하니라 ○黃: 長衡直揚은 五變에 則作長衡直揚이니 言其目突而眉直也라

15) 馬: 夫所謂勇士者는 兩目至深하고 且不轉睛 逃避而甚固하며 有長衡直揚之勢하며 內之三焦紋理橫生하며 心則端正而直하며 肝則甚大而堅하며 膽則汁滿而橫하여 及其怒也엔 氣盛而胸張하며 肝舉而膽橫하며 皆裂而目揚하며 毛起而面蒼하니 此勇士之所以然者也라 ○張: 朱永年曰 目深以固 長衡直揚은 肝氣強也라 理者는 肌肉之文理니 乃三焦通會之處라 三焦理橫은 少陽之氣壯而膽橫也라 其心端直은 自反而縮也라 肝大以堅은 臟體之堅大也라 膽滿以旁은 膽之精汁이 充滿於四旁이니 此肝膽之形質壯盛也라 氣盛而胸張은 氣之盛大也라 肝舉而膽橫 皆裂毛起는 肝膽之氣強也라 夫心者는 君主之官이니 神明이 出焉하고 肝者는 將軍之官이니 謀慮出焉하고 膽者는 中正之官이니 決斷出焉하니 是以로 心直氣壯肝舉膽橫이 此勇士之由然者也라

16) 《語譯》: 長衡直揚은 文選魏都賦劉注에 眉上曰衡이라하니 此는 謂長眉堅起라 其膽滿以傍의 傍은 與旁通이요 旁有盛義라 ○校釋: 長衡直揚의 衡은 指眉上的部位言이니 文選魏都賦劉注에 眉上曰衡이라하니라 揚은 原指眉上

[2] 怯士者 目大而不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髑髒短而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腸胃挺 脇下空 雖方大怒 氣不能滿其胸 肝肺雖舉 氣衰復下 故不能久怒 此怯士之所由然者也

馬·張은 “怯士는 겉으로 눈이 큰 것 같지만 깊지 못하고 開閉를 잃어 눈동자를 돌리는 것이 일정치 못하다. 여기에 안의 三焦紋理는 縱緩되어 있고 髑髒骨은 短小하며 肝系는 늘어져 있고 膽은 그득하게 차있지 못하고 늘어져 있으며 腸胃는 挺然히 彎曲이 없고 脇下는 물렁물렁해져 견실하지 못하여 비록 화나는 일이 생겼을 지라도 氣가 가슴에 가득 쌓이지 못하고, 肝肺가 들릴지라도 氣가 쇠해져 다시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래 화를 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怯士가 생기는 까닭이다.”¹⁷⁾고 하였고, 景岳·黃·《譯解》는 “減은 絨으로 써야 하는데 封藏을 말한다. 目大不減은 神氣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고, 陰陽相失은 血氣가 쉽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니 바로 轉盼驚顧의 뜻이다. 焦理縱은 肉理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髑髒가 短小한 사람은 그 마음이 卑賤하고 狹小하여 남의 아래에서

下的部位나 見詩君子偕老孔疎하니라 長衡直揚은 指眉上長而且直이니 形容橫眉瞪目的樣子라
17) 馬: 夫所謂怯士者는 外目雖大而不深하고 開閉相失하여 轉睛不常也요 內之三焦紋理則縱하며 髑髒之骨來短而小하며 肝之系則緩하며 膽則不滿而縱하며 腸胃則挺然而不曲하며 脇下則空而不堅하여 雖方大怒나 氣不能滿其胸中하고 肝肺雖舉나 氣衰復下라 所以不能久怒하니 此乃怯士之所以然者也니이다 ○張: 朱永年曰 目大而不減者는 目雖大而不深固也요 陰陽相失者는 氣血不和也요 焦理縱者는 三焦之理路縱弛也요 髑髒短而小者는 心小而下也요 肝系緩膽不滿 腸胃緩 脇下空은 肝膽之體質薄也라 夫肺主氣도되 氣不能滿其胸 故로 雖方大怒하여 肝肺雖舉나 氣衰復下하니 此怯士之所由然者也라

기를 좋아한다. 肝系緩은 不急이다. 膽不滿而縱은 膽汁은 적고 형태는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다. 腸胃挺은 曲折이 적은 것이다. 脇下空은 肝氣가 不實한 것이다. 이는 그 肝膽이 충실하지 못하고 氣가 가득하지 못한 까닭으로 화를 냈다가도 금방 수그러드는 것이니 이것이 다 怯士가 생기는 까닭인 것이다.”¹⁸⁾고 하였다.

【考察】

1. ‘長衡直揚’은 《靈樞·五變》에도 나오는데 張馬合本에는 ‘長衡直揚’으로 되어 있고 《甲乙》卷十一第六에는 ‘長衡直揚’으로 되어 있다. 대개 古代 註釋家들의 註釋이 막연히 눈 모양새나 눈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현대의 註釋家들은 《文選》이나 《詩經》 등의 古典을 인용하여 文字學的으로 정확히 고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文選》이나 《詩經》에 따르면 衡은 눈썹 위를, 揚은 눈썹의 위아래를 지칭한다고 했으므로 ‘長衡直揚’의 뜻은 눈썹이 길면서 곧게 자란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 其膽滿以傍의 傍을 景岳은 ‘膽囊이 다른

18) 景岳: 減은 當作絨이니 封藏之謂라 目大不減者는 神氣不堅也요 陰陽相失者는 血氣易亂也니 卽轉盼驚顧之意라 其焦理縱者는 肉理不橫也라 髑髒短小者는 其心卑小而甘出人下也라 肝系緩者는 不急也라 膽不滿而縱者는 汁少形長也라 腸胃挺者는 曲折少也라 脇下空者는 肝氣不實也라 此는 其肝膽不充하고 氣不能滿하여 以故로 旋怒旋衰하니 是皆怯士之由然이라 ○黃: 減은 與絨通하니 收也라 髑髒는 蔽心骨也라 挺은 長也니 鬆長不收也라 ○譯解: 挺은 是直而沒有彎曲的意思니 腸胃挺은 就是形容腸胃不強健하여 其態度瘦細而直하여 曲折少의樣子라 脇下空은 是形容肝氣不充實의意思라

사람보다 옆으로 커져 있다.’고 하였고, 語譯과 校釋에는 ‘傍은 旁과 통하고 旁은 盛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勇士와 怯士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勇士는 눈이 깊고 견고하며 눈썹이 길고 반듯하며 三焦와 膜理가 힘이 있으며 그 心이 端正하고 바르며 그 肝이 크고 굳건하며 그 膽이 그득하게 盛하여 怒하게 되면 氣가 盛하여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肝이 들리고 膽이 橫行하며 눈자위가 옆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곁으로 드러나며 터럭이 일어나고 얼굴이 푸르러 지니, 이것이 勇士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願컨대 怯士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怯士는 눈이 큰 것 같지만 깊지 못하고 陰陽이 相失하며 그 三焦와 膜理가 늘어지고 關肝가 短小해 지며 肝系가 緩慢해 지며 그 膽이 가득 채워지지 못하여 아래로 처지며 腸胃가 彎曲이 없어져 늘어지며 脇下가 물렁물렁해져 비록 크게 화를 낼지라도 氣가 그 가슴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肝肺가 들려졌을지라도 氣가 衰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화를 낼 수 없으니 이것이 怯士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第四章. 酒悖

【原文】

黃帝曰 怯士之得酒에 怒不避勇士者는 何藏使然이니잇고
少俞曰 酒者는 水穀之精이요 熟穀之液也

라 其氣慄悍하여 其入於胃中則胃脹하고 氣上逆하여 滿於胸中하며 肝浮膽橫하니 當是之時엔 固¹⁾比於勇士나 氣衰則悔라 與勇士同類하여 不知避之²⁾하니 名曰酒悖³⁾也니이다

【校勘】

- 1) 固: 《校釋》과 《語譯》에 “統本과 金陵本에는 모두 同으로 쓰여 있다.”¹⁹⁾고 하였다.
- 2) 不知避之: 《語譯》에 “統本에는 ‘不知避之’가 ‘不知爲之’로 쓰여 있다.”²⁰⁾고 하였다.

【字句解】

(1) 悖: 亂也 어그러질 패.

【較註】

[1] 酒者水穀之精 熟穀之液也 其氣慄悍 其入於胃中則胃脹 氣上逆 滿於胸中 肝浮膽橫 當是之時 固比於勇士 氣衰則悔 與勇士同類 不知避之 名曰酒悖也
馬·景岳·張·黃·章은 “이는 怯士가 飲酒後에 勇士를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까닭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술은 水穀의 精이고, 익힌 곡식에서 생긴 液體이다. 그래서 그 氣가 慄悍하기 때문에 胃中으로 들어가면 胃가 그득해지고 氣가 逆上되어 가슴에 차며 肝氣가 들뜨고 膽氣가 橫逆하게 된다. 이때에는 스스로를 勇士에 비겨 삼갈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술이 깨면 후회하게 되는데 이를 술로 인해 悖逆된 것이라고 한다.”²¹⁾고 하였다.

19) 《校釋》·《語譯》: 統本金陵本에 并作同이라
20) 《語譯》: 統本에 作爲라

【考 察】

술의 장점과 그 폐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술을 잘 활용하여 健康을 維持하고 健全하고 親密한 人間關係를 形成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치거나 무절제한 음주습관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이 나온 당시에도 음주문제가 개인생활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다. 술은 東洋에서는 일찍이 藥酒로 活用되어 왔음을 《素問·湯液醪醴論》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후 술을 藥酒 목적으로 보다 享樂에 주로 사용하다가 疾病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술의 危害에 대해서는 張景岳이 “愚按컨대 酒爲水穀之液이요 血爲水穀之精이니 酒入中焦면 必求同類라 故로 先歸血分이라 凡飲酒者는 身面皆赤이 卽其徵也라 然이나 血屬陰而性和하고 酒屬陽而

氣悍하며 血欲靜而酒動之하고 血欲藏而酒亂之하며 血無氣不行 故로 血亂이면 氣亦亂하고 氣散이면 血亦散하니 擾亂一番에 而血氣能無耗損者는 未之有也라 又若人之稟賦는 藏有陰陽而酒之氣質도 亦有陰陽이라 蓋酒成於釀하니 其性則熱하고 汁化於水하니 其質則寒이라 故로 陽藏者得之면 則愈熱하고 陰藏者得之면 則愈寒하니 所以縱酒不節者는 無論陰陽하고 均能害라 凡熱盛而過飲者는 陽日勝則陰日消하여 每成風痺腫脹이요 寒盛而過飲者는 熱性去而寒質留하여 多至傷腎敗脾라 當其少壯하여는 則旋耗旋生하여 固無所覺이나 及乎中衰而力有不勝이면 則宿孽爲殃하여 莫能禦矣라 然則酒悖之爲害也에 所關於壽元者非細하니 其可不知節乎아”라 하여 陽藏에 屬한 사람이나 陰藏에 屬한 사람이나 飲酒가 지나치면 諸般疾病이 續出할 수 있음을 警戒하고 있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出現하여 오랜 세월동안 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또한 용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接神의 한 수단으로 제사 등에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술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좀더 용기있게 하거나(사실은 蠻勇에 가깝지만)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데 活用되어 왔다. 그러나 술이 인간에게 꼭 기쁨과 위안만을 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음주습관이나 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탐닉은 인간에게 위장관, 췌장, 간장, 심장이나 혈관, 면역기능, 내분비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악성종양도 유발하며, 정신적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 결국 술이란 인간에게 기쁨과 고

21) 馬: 此는 言怯士得酒而不避勇士之故也라 蓋酒爲水穀之精이요 熟穀之液也라 其氣則慄悍故로 入於胃中則胃脹氣逆胸滿肝浮膽橫이라 斯時엔 方將自比於勇士而不知避之라가 至於酒氣既衰則悔하니 此之謂因酒而悖逆者耳라 ○景岳: 慄는 急也요 悍은 猛也라 酒之性熱氣悍 故로 能脹胃浮肝하고 上氣壯膽하니 方其醉也엔 則神爲之惑하고 性爲之亂하여 自比於勇而不知避요 及其氣散肝平엔 乃知自悔하니 是 因酒之所使而作爲悖逆이라 故로 曰酒悖라 ○張: 朱永年曰 此는 復申明人之勇怯이 本於氣之強弱이요 氣之壯盛이 由胃腑水穀之所生也라 酒者는 水穀之精이요 熟穀之液也라 其氣慄悍故로 能助氣之充滿而使肝浮膽橫이라 然이나 酒散則氣衰하고 氣衰則悔矣라 故로 善養乎氣者는 飲食有節하며 起居有常하니 則形氣充足矣라 暴喜傷陽하고 暴怒傷陰하니 和其喜怒則陰陽不相失矣라 形氣壯盛이면 雖遇烈風暴雨라도 無由入其腠理리니 而況於四時之虛風乎아 ○黃: 悖는 亂也라 ○章: 恃血氣之勇而不知義禮者가 卽酒悖之類也라

통을 동시에 안겨 주는 양면이 있으므로 그 허실을 살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怯士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勇士를 꺼리지 않는 것은 어느 臟器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술은 水穀의 精이고, 익힌 곡식의 液體입니다. 그 氣運은 慄悍하여 胃中으로 들어가면 胃가 脹滿되고 氣가 逆上되어 胸中에 그득 차게 되며 肝이 들뜨고 膽이 橫逆하게 되니, 이때를 當해서는 참으로 勇士에 비길만하다고 하나 氣가 衰해지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勇士와 더불어 같은 부류로 여겨 꺼릴 줄을 모르니 이름하여 酒悖라고 합니다.

IV. 意譯

黃帝께서 少俞에게 말씀하였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나이도 같으며 衣服의 厚薄도 균등할 지라도 卒然히 심한 바람이나 暴雨를 만나게 되면 或 病이 들기도 하고 或 病이 들지 않기도 하며 或 다 病이 들기도 하고 或 다 病이 들지 않기도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黃帝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말씀드리리까?”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봄은 靑風, 여름은 陽風, 가을은 涼風, 겨울은 寒風으로서 무릇 이 四時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을 病들게 하는 데, 이 에는 각기 형태가 다릅니

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四時의 바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黃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白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여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靑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가을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고, 赤色으로서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겨울의 虛風을 이기지 못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黑色인 사람은 病들지 않습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黑色이면서 皮肉이 두텁고 堅固하면 四時의 바람에 傷하지 않으나, 그 皮膚가 薄弱하고 肌肉이 堅固하지 못하며 色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면 病이 들고, 그 皮膚가 두텁고 肌肉이 堅固한 사람은 長夏에 이르러 虛風이 있게 되더라도 病들지 않으며, 그 皮膚가 두텁고 肌肉이 堅固할 지라도 반드시 寒氣에 거듭 感觸되어 人體의 內部와 外部가 다 侵犯당하면 마침내 病이 들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사람이 痛症을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은 勇敢과 卑怯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勇士가운데에도 통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나아가고 痛症이 보이면 동작을 멈추며, 怯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痛症을 만나면 動搖가 없으며, 勇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는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痛

症을 마주하고도 動搖가 없으며, 怯士가운데에 痛症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림과 통증을 마주치면 눈이 돌아가고 얼굴을 돌려 보며 두려워 말을 못하게 되고 氣를 잃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되며 顏色이 變化하여 죽은 것 같이 되는데, 내 그러한 것은 보았으나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願컨대 그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무릇 痛症을 참고 못 참는 것은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 緩急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勇敢과 怯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勇士와 怯士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勇士는 눈이 깊고 견고하며 눈썹이 길고 반듯하며 三焦와 腠理가 힘이 있으며 그 心이 端正하고 바르며 그 肝이 크고 굳건하며 그 膽이 그득하게 盛하여 怒하게 되면 氣가 盛하여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肝이 들리고 膽이 橫行하며 눈자위가 옆으로 찢어지고 눈빛이 곁으로 드러나며 터럭이 일어나고 얼굴이 푸르러지니, 이것이 勇士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願컨대 怯士가 생기는 까닭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말하였다. “怯士는 눈이 큰 것 같지만 깊지 못하고 陰陽이 相失하며 그 三焦와 腠理가 늘어지고 髑髒가 短小해 지며 肝系가 緩慢해 지며 그 膽이 가득 채워지지 못하여 아래로 처지며 腸胃가 彎曲이 없어져 늘어지며 脇下가 물렁물렁해져 비록 크게 화를 낼지라도 氣가 그 가슴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肝肺가 들러졌을지라도 氣가 衰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화를 낼 수 없으니 이것이 怯

士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였다. “怯士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勇士를 꺼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어느 臟器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少俞가 말하였다. “술은 水穀의 精이고, 익힌 곡식의 液體입니다. 그 氣運은 標悍하여 胃中으로 들어가면 胃가 脹滿되고 氣가 逆上되어 胸中에 그득 차게 되며 肝이 들뜨고 膽이 橫逆하게 되니, 이때를 當해서는 참으로 勇士에 비길만하다고 하겠으나 氣가 衰해지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怯士가 술을 마신 뒤에는 勇士나 된 것처럼 여겨 삼갈 줄을 모르니 이름하여 酒悖라고 합니다.

V. 結 論

1. 第一章의 ‘靑風’이 《甲乙》에는 ‘溫風’으로 되어 있는데 《甲乙》의 기재가 옳은 것 같다. 왜냐 하면 아래 ‘陽風’, ‘涼風’, ‘寒風’이 기후의 寒溫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色을 나타내는 ‘靑’字보다는 溫度를 나타내는 ‘溫’字가 의미로 보아 원문의 뜻에 더욱 부합되기 때문이다.
2. 第一章의 ‘靑色薄皮弱肉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 不勝冬之虛風也’가 『甲乙』에는 ‘靑色薄皮弱肉者 不勝秋之虛風 赤色薄皮弱肉者 不勝冬之虛風也’로 되어 있는데, 윗 문장이 ‘黃色薄皮弱肉者 不勝春之虛風 白色薄皮弱肉者 不勝夏之虛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3. 第一章에서는 疾病發生의 要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內容은 本篇의 題目인 論勇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甲乙》에는 本章이 《靈樞·賊風》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 보면 王冰이 本書를 편찬할 때 內容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4. 第二章에서는 통증을 잘 참고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용감성과 비겁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 緩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論하고 있다. 痛症에 대한 感受性問題는 感覺神經의 발달 정도에 달린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器質과 機能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통증에 대한 감수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第三章의 長衡直揚은 《靈樞·五變》에도 나오는데 《張馬合本》에는 長衡直揚으로 되어 있고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長衡直揚으로 되어 있다. 長衡直揚의 뜻은 눈썹이 길면서 곧게 자란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6. 第三章의 其膽滿以傍의 傍을 景岳은 ‘膽囊이 다른 사람보다 옆으로 커져 있다.’고 하였고, 語譯과 校釋에는 ‘傍은 旁과 통하고 旁은 盛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7. 第四章에서는 酒悖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酒悖란 알콜중독에 의한 이상행동 즉 술 주정을 말한다. 술의 장점과 그

폐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술을 잘 활용하여 健康을 維持하고 健全하고 親密한 人間關係를 形成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치거나 무절제한 음주습관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들을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이 나온 당시에도 음주문제가 개인생활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出現하여 오랜 세월동안 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술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또한 용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接神의 한 수단으로 제사 등에 이용되어 왔다. 술이 인간에게 꼭 기쁨과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음주습관이나 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탐닉은 인간에게 위장관, 韃장, 간장, 심장이나 혈관, 면역기능, 내분비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악성종양도 유발하며, 정신적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 결국 술이란 인간에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 주는 양면이 있으므로 그 虛實을 살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大星文化社, 서울,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6.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一中社, 서울, 1988.
7.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8.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2.
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0.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3.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4.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オリエト出版社, 1988.
1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16.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7.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論章, 서울,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陰陽脈診出版社, 서울, 1992.